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참된 출가자 탄생... 세상에 큰 빛 전하다

47 현장법사의 출가 이야기

한 사람의 스님이 나오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복원이 접쳐야 하는가?

한 사람의 스님이 나오면 또한 얼마나 많은 복원이 이어지는가? 현장법사야말로 그런 대표적인 예~

그분 한분의 위대한 복원이 크게 흥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 복원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그분 나오시기까지 인연도 당연히 법상지 않았지? 그분께서 금산자란 수행자로서 오랜 기간 수행을 해 온 몸이라는 것은 이미 말했던가? 그 수행의 인연이 어떻게 금생에 이어졌던가?

때는 당(唐)왕조 태종 연간 나라에 인재를 뽑기 위해 큰 과거를 시행하는데 거기에 장원으로 급제한 인물 있다. 그 이름 진악(陳杓, 자(字)는 광예(光猷)라 당시 승상벼슬을 하던 은개산의 따님 은교아가씨와 인연이 있어 화촉동방의 가연을 맺으니 둘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에 전생의 금산자란, 금생의 현장법사 인연이 깃들었다.

장원급제자인 진악에게 강주사마의 벼슬이 내려지니 꽃다운 아내와 임지로 내려간다. 가던 길에 머문 여관 앞, 금빛 잉어를 파는 이 있는데 이 잉어가 비보통 잉어란다. 물고기인데도 눈을 깜박이니 진악이 기이하게 여겨 이 잉어를 사서 놓아주네.

그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는데 아아~ 흥강 나무에서 흉악한 도적을 만난다. 은교교 부인의 미색에 흥린 유흥과 이표라는 두 사공으스한 곳에서 진악을 죽여버리고 부인 은교교를 겁박한다. 어느 덧 세월이 흘러 백숙의 아기 태어나니, 고추달린 옥동자라 남극성군(南極星君) 현몽하여 비범한 인연 있음을 알려준다. 부인 피눈물 흘리며, 또 손가락 깨물어 피를 내어 자제한 내력을 혈서로 써 아이 품에 넣고 판자에 묶어 강물에 떠내려 보낸다. 금산사란 절에 범법화상이란 덕높은 스님 계셨네. 선정 삼매 속에서 아이 울음 듣고 강가에 나오셨다가 아이를 구하셨네. 아이가 장성하자 현장이라는 법명을 내리고 제자로 삼으니 바로 이가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현장법사!

한 위대한 인물 태어나는데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 엮여 있구나. 현장법사 스승에게 자신의 내력을 여쭙니 스승께서 감춰두셨던 혈서를 보여준다. 강주에 이르러 은밀히 어머니 은교교 부인 만나 묘자의 인연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장안에 가서 외할아버지 은승상 만나서 사정을 아뢰어 유흥 도적을 토벌할 군대를 일으키네. 원한 갚고 아버지가 죽은 강가에서 통곡하며 제를 지내는데 물위로 아버지 시체가 떠내려온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시체가 아니다. 차츰 몸을 움직이더니 깨어나 누나! 이게 또 어찌된 일인가? 알고보니 또한 더더욱 묘한 인연 있었네. 진악이 부임길에 놓아준 금빛 잉어가 알고보니 용왕이었다네. 은인의 혼백과 시체를 고이 보존하고 있다가 제자리로 돌려보낸 것이로세.

인과응보... 참으로 무섭지 않은가? 하늘의 그물은 성글고 성글듯 하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하였던가? 이렇게 무사히 모든 인연 정리하고 속세의 인연을 마무리한 현장법사

다시 불문제자의 신분으로 돌아와 흥복사에서 수행을 계속하시니 이 기구한 인연의 길을 통과한 분이시라 그 수행의 각오도 드높을 수밖에!

우리 이야기의 진실한 주인공이 현장법사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은 모두 현장법사라는 실제 인물의 여러 측면을 나타낸 것이구요. 손오공이 맹활약을 하기에 손오공을 전면으로 내세웠지만, 역시 실제 인물인 현장법사가 그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현장법사가 현장법사로 있게 된 인연담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압축한 이야기로 살펴보니 어떠세요? 물론 이 이야기는 서유기에 나온 현장법사의 인연담입니다. 실제 인물인 현장법사의 전기는 그리 자세하지 않아요. 아 물론 자세하지 않다는 것은 현장법사가 인도 다녀오기 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워낙 유명해지고, 또 두드러진 활동을 했으니 잘 알려져 있죠. 젊은 시절의, 인도에 가기 전의 현장법사는 속명(陳禪)이며, 형을 따라 낙양의 정토사에서 불법을 공부하다가 13세에 승적(僧積) 이름을 올렸다는 등의 간략한 이야기만 알려져 있을 뿐이지요. 서유기는 이러한 현장법사의 이야기를 재미있는 인연담으로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한 위대한 인물이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은 금생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게 마련이지요. 부처님에게는 엄청난 '본생담'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애를 쌓아온 결과가 이생에서 이러한 꽃을 피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현장법사도 본디는 부처님 회상에서 수행하던 금산자란 분이었다고 하지요. 자그만 죄를 저질러 하계로 환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하구요. 거기에 진악이라는 분과 부인의 이야기가 곁들여지고, 또 잉어로 잡혀온 용왕과

의 인연이 엮히는 신비한 인연담이 전개되는군요. 한 인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매우 깊고도 복잡한 인연의 출기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건강한 생각일 것 같구요. 단 우리가 보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한분의 스님이 출현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연이 겹쳐야 나올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도 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유락(五慾樂)이라는 것을 추진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진리에 대한 추구에 온 삶을 바치는 분들! 그런 삶이 바로 스님의 삶이지요. 그런 분 하나 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에 큰 빛을 던지는 일이지요. 거기다 현장법사처럼 역사에 큰 빛을 드리고, 우리에게 불법의 큰 인연을 전해준 큰 분의 출현이야말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인연들이 빚어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 한 분이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 이전의 수많은 스님들이 이룩했던 바탕 위에, 그분의 위대한 노력이 더해지면서 그런 큰 결과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유락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에 몸을 던지신 수많은 스님들의 잣빛 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불법이라는 큰 인연이 이어진 것이겠지요. 현장법사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승가에 대한 존경심을 복돋우는 귀한 소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함없는 그 구도심이 서유기의 처음과 끝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다음 시간에 봐요.



그림 · 최주현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정

YESGOOD.CO.LTD

[문의전화]
02-365-7747

오시는 길 : 서울 종로구 조계사앞 대륜광빌딩2층
www.mahayeon.com

성지순례

인연이 닿아야 갈수있는 곳
천불천탑의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6월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미얀마 7월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펜타야]
미얀마 7월 (3대 성지)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미얀마 5월 [양곤-바간-헤호]

마하연투어만의 특징
1. 최정준영으로 중강마인을 뺀 기적
2. 오랜 경험으로 현지불교행사 진행
3. 호텔-행사-식사(타사비교 필수)

냉방불교의진수 인도/스리랑카
하늘과맛닿은 불교성지 티베트/부탄/네팔

KOREAN AIR
부탄순례 NO 경유! 인천->네팔, 부탄

인도 11일 (8대성지) **티베트(하늘열차) 8일**

스리랑카 6일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인도/네팔 15일

동티베트 9일
성도-문천-마얼강-오명불학원-야장스-관당

티베트6일
성도-라싸-암드록초-간제-시가체

부탄/네팔 8일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 순례지

대만/라오스/베트남 캄보디아

4대불산 중국 [China]
990,000원부터~

[지장도량] 구화산-관음도량] 보타산6일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태항산-천계산-요산(208m중원대불)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청도/공부/태산6일(웨리크루즈)

대만5일 대만3대 사찰순례
대만/홍콩5일 홍콩(2)-대만(2)-화련
태국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6일
하롱베이-루앙프라방

베트남/캄보디아6일 하롱베이-싸엠림